

이슈브리프 857호  
(2026. 7. 2)

## 제36차 앙카라 나토(NATO) 정상회담과 한국-유럽 방산 협력

# 제857호

이수형 poodong330@naver.com



## 국문초록

다가오는 7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제36차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은 NATO+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자격으로 참석할 걸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크게 ① 나토의 국방 투자와 GDP 5% 약속 ② 나토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③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체계 강화라는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 방위산업 포럼(NSDIF26)」은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에는 나토, 나토 동맹국, 나토 파트너 관계자, 산업 리더, 산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방위산업 포럼(NSDIF26)」에서 연설할 걸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튀르키예 대통령 및 캐나다 총리 등 북핵을 위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방산 등 우리의 국가적 사업, 그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 구축과 직접 연관된 주요 중견 강국과의 연대와 협력 등 양자적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앙카라 나토 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토 및 유럽 동맹국 간의 방산 협력 관련 다자회담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책임 강국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견 강국과의 양자 회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 NATO 정상회의 방위산업 포럼(NSDIF26), 한국-미국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공존, 글로벌 책임 강국

다가오는 7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제36차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지난 2004년 이스탄불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담을 유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할 국가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하여 나토 32개 회원국과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나토+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탄불 이니셔티브 참여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앙카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이번 앙카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크게 ① 나토의 국방 투자와 GDP 5% 약속 ② 방위산업 역량 강화 ③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체계 강화라는 3가지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방 투자 분야이다. 지난 2025년 제35차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의 연간 5%를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합의했다. GDP 5% 국방 투자에는 두 가지 필수 방위 투자 범주가 포함된다. 첫째는 핵심 방위 요건으로 동맹국들은 자원 핵심 방위 요구에 GDP의 최소 3.5%를 할당하고 나토 역량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나토의 국방비 지출은 동맹국 국가 정부가 자국 군대, 다른 동맹국, 동맹 전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국방비 지출 근거에 따라 동맹국들은 GDP 5%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점진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연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두 번째는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로 동맹국은 주요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민간 대비 및 회복력 확보, 혁신,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광범위한 국방 및 안보 관련 투자에 대해 GDP의 최대 1.5%를 할당할 것에 합의했다. 참고로 2025년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는 국방비를 900억 달러 이상으로 2024년 대비 거의 20%를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이들은 국방에 대한

집단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2014년 총 GDP의 1.4%에서 2025년에는 2.3%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5,710억 달러(2021년 가격 기준) 이상을 국방에 투자했다.

두 번째 주요 의제는 나토 동맹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나토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동맹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빠르고 대규모로 제공해 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NATO는 억지력과 방어 태세를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맹국들은 방위생산 투자를 더욱 강화해 왔다. 이는 억지와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으로 고갈된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동맹국들은 산업 역량 증대와 생산 증대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동맹국들은 2024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나토 산업 역량 확장 서약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서약은 동맹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이 무기고를 보충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계속 보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 나토 국방부 장관들은 동맹의 산업 생산 능력 확장 약속과 방위생산 행동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앙카라 정상회담에서는 「NATO 정상회의 방위산업 포럼(NSDIF26)」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NSDIF26은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에는 나토, 나토 동맹국, 나토 파트너 관계자, 산업 리더, 산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주요 의제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유럽의 안보로 인식하고 있는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현재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2025년 7월에 시작된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요구사항 목록(PURL)」이다. 이를 통해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방위 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 PURL 하에서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고 미국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보다 더 많은 양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와 탄약 패키지를 정기적으로 식별하는 등 나토 자체가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한다. 오늘날 동맹국의 3분의 2 이상이 PURL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며, 나토 파트너인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이다.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PURL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장비를 지원했고, 탄약과 방공에 필요한 필수 장비 배송을 포함한 인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앙카라 정상회담에서는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원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과 나토 동맹국 간 방위산업 협력

한국과 나토 유럽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 추진 방향은 크게 나토 및 유럽 동맹국과 방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와 기능적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문제로 압축된다. 이번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NSDIF26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협력 관련 연설을 하는 걸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유럽 지역으로 방산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5월 나토 국방산업, 혁신 및 군수 담당 사무차장보인 타르야 야콜라(Tarja Jaakkola)는 한국을 방문하여 국방 협력 뿐만 아니라 상호운용성, 공동 개발, 공동 조달, 공급망 보안, 중요 원자재 및 산업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또한 방산 협력과는 별도로 한국-나토 안보 협력은 사이버 안보, 신형 기술 등

기능적 안보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통해 향후 한국이 방산 관련 나토의 주요 위원회(Committee) 및 기관(Agency)에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을 모색할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7월 제34차 빌뉴스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나토와 합의한 11개 분야 중에서 기능적 안보 분야에 걸친 주요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전략적 고려 사항

향후 한국과 나토, 그리고 유럽 동맹국 간의 방위산업 협력은 보다 활발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나토 및 유럽 동맹국 간 협력이 지속되면, 한국은 점진적으로 유럽-대서양 안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앙카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및 군수 장비 지원 문제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부담되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은 역설적으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보다는 한국이 유럽-대서양 안보 문제에 관여할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유럽의 방산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유럽 동맹국은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와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클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① 유럽 동맹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제 ②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전략적 입장 ③ 중장기적으로 나토와의 협력 의제와 범위 등에 관한 체계적인 내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공존과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 과제이자 국가적 목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이 둘 간의 모순을 최소화하고 공통 분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공존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입장 고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 목표와 전략 과제 추진을 위해 설정한 우리 내부의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가 설정한 원칙에 따라 일관된 한국과 나토, 그리고 한국과 유럽 동맹국 간의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방위산업 포럼(NSDIF26)」에서 연설할 걸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튀르키예 대통령 및 캐나다 총리 등 북핵을 위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방산 등 우리의 국가적 사업, 그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 구축과 직접 연관된 주요 중견 강국과의 연대와 협력 등 양자적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앙카라 나토 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토 및 유럽 동맹국 간의 방산 협력 관련 다자회담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책임 강국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견 강국과의 양자 회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이 한국과 나토 유럽 동맹국 간 방위산업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글로벌 책임 강국을 구축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커다란 성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